

외국인 노동자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지구촌사랑나눔’으로 배달된 나눔상자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나눔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지구촌사랑나눔’을 찾아가
나눔상자와 식자재 등을 후원했다.

글 석수영 사진 최충식





외국인 노동자에게 희망 전할 나눔상자 후원회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지구촌사랑나눔'. 이곳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다양한 교육·의료·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타국에서 겪는 생활고와 문화적 차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만큼, 협회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필품, 의료용품(메디컬박스)이 담긴 나눔상자와 소정의 식자재를 '지구촌사랑나눔'에 전달했다. 나눔상자는 조만간 이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전해질 예정이다. 나눔상자 전달식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준연 회장과 임직원 3명이 참석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했다. 사실 '지구촌사랑나눔'과 협회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지구촌사랑나눔'이 추진하는 각종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후원금과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실행

김준연 회장은 '지구촌사랑나눔' 채수일 이사장과 악수를 나누며 "나눔상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우리 사회의 온기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협회 임직원과 '지구촌사랑나눔' 관계자들이 나눔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사회공헌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다. 🍀



66 나눔상자를 전해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슴에 온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관심받고 있다고 느낄 테니까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지구촌사랑나눔에 보내주는 꾸준한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99

지구촌사랑나눔 채수일 이사장 (경동교회 담임목사)